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수넬여인이 구하는 것 성경: 열왕기하 4장 25-30절

Tag:

25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계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넬 여인이 있도다

26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나 네 남편이 평안하나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27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밭을 안은 지라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28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29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30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왕하4:25-30)

수넬은 술람미로도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술람미에는 미인이 많았나 보다. 먼저 다윗의 맨 마지막 첩이 수넬여인 아비삭이다. 아비삭은 다윗과 결혼 하였지만, 다윗이 너무 늙어 결혼하였기 때문에 다윗 사후에도 처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아가서는 솔로몬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노래로 유명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여인은 탈무드에는 아비삭의 집안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부인이라고 한결 보니(8절) 왕족 집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그 남편도 부자여서 소위 남부럽지 않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이 여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살펴볼 때 보통 현명한 여인이 아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여인은 매우 영성이 뛰어난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여인처럼 아이가 없다.

아무튼 성경에는 수넴여인에 관해서는 신비주의를 사용하는 것 같다. 뭔가 베일에 싸여 있고,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순전하고 은근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약간 실어증이 있는 듯하다. 왜일까? 사실 말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말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하며 화병이 도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풀어냈다. 그것만으로 이 여인은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항상 평안하게 말하고, 게하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말한다.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아무말 하지 않고 그 다리를 붙들었다. 이 다리는 오늘 내것이라는 뜻이다. 이 다리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28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즉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오직 당신이 가 봐야 합니다라는 뜻이다. 하나의 행동이 사실은 많은 말, 함축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의미까지 전달하게 마련이다.

아무튼 이 수넴여인은 엘리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채고 자신의 집안에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들르면 식사와 거처를 제공하였다. 엘리사로서는

이보다 더 편리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엘리사가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담장에다가 층계를 만들어서 밖에서 바로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쳐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혹시라도 엘리사가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없었다. 이것이 딱 한가지 섭섭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아들이 없어서 편리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당시로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을 듯 한 느낌이 든다.

또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였다. 섬기면서 무언가 바라는 것은 없었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였다.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를 해 달라든지, 청이 있는데 들어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극진한 배려를 제공받은 엘리사가 뭔가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리라는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시켜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소원이나 청원이 있는지를 물었다. 수넬여인은 그런 것 없으며, 자신은 지금 현재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여인을 돌려 보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정보를 주었다.

자, 여기서 엘리사는 약간은 오버된 생각을 한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왜냐면 남편이 사별한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아들까지 없다면 이 여인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거짓말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여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여인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나에게 사기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과연 나에게 그런 행복이 임해도 된다는 것인가를 두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는 그런 행복을 상상하면 앓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고, 여인은 더 없는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되었다.

아이가 걸어다니는 대여섯살 즈음에 아이가 아버지의 일터에 놀러가게 되었는데(아마도 아비가 너무 귀여워 했을 것이다.) 아이에게 일사병이 생겼다.

아이가 어릴 경우 일사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 아이를 급히 집으로 돌려 보냈으나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그만 시름 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아이의 엄마는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 하였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아이의 생명에 관계된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만측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생명을 내 걸고 덤비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내 걸고 덤빌 경우 은총을 베풀

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시는 방법이다. 오직 희생적인 사랑 외에는 운명이나 마귀의 힘이나 저주를 상대로 싸울 수 없다.

그러나 수념여인이 취했던 행동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했다.

28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서 큰 만족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와서 내 삶에 변화를 주었는데 아들을 얻게 하였다. 아들 때문에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으며 무언가 희생적인 삶으로, 무언가 희망 가득하고 분주한 삶으로 나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들을 얻기 이전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나의 이 고통을 당신은 해결하라!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큰 고통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이다.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런 행복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잃은 고통까지 겹쳐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아들이 없는 삶이 저주스러운가, 아들을 잃은 삶이 저주스러운가? 무엇이 더 저주스러운가?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살리는 복을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녀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행복이다.

이 여인 개인으로서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모든 인생은 이처럼 자신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외에는 없다.
이 점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평
상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30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
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수냄 여인이 구하는 것)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이유는, 오직 영
원한 만족을 구할 때 영원한 만족 뿐 아니라 일상적인 만족도 얻게
되고,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이 만족이 전수되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